

여명

여명노인복지센터 「여명」 통권 제23호

발행처 : 여명노인복지센터 ●발행인 : 도성숙 ●편집인 : 최 현

전 화 : (063) 224-5673 ●FAX : (063) 224-6896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78-9

●E-mail : careym@hanmail.net ●카페 : <http://cafe.daum.net/careym>

●인쇄·디자인 : 대흥정판사 063)254-0056



모두 행복해 지는 말

“힘을 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아름다워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환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소근거리세요
그러면 당신도 아름다워지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푸근해 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또렷하게 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감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사랑해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하셔야 해요
그러면 당신도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출처: 좋은 글 모음 중에서〉



여명노인복지의 3대목표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 정책 발전

여명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우애서비스, 가사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체크 서비스와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2 아름다운 글이 있는 곳
모두 행복해지는 말(言)
- 03 contents
- 04 여는 글
어르신들의 평생친구 ^^ 여명노인복지센터 / 최 현 간사
- 05 어르신 해수찜 나들이
- 07 정기활동
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노케어, 장애인도시락지원
- 08 절기지원
복날, 추석, 동절기(연탄,김장김치,주거보수)
- 10 현장의 소리 / 박명훈(사회복무요원)
- 11 자원봉사자 단합대회
변산 마실길을 다녀오며...
- 12 자원봉사자 해넘이 축제
- 13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 14 2011년 결산회계 & 상반기사업계획
- 15 기타동정
- 16 도움의 손길



표지설명

“행복하고 소중한
2박3일의 직원
제주도 연수길에서...”



어르신들의 평생친구^^ 여명노인복지센터

“오세요!! 평생친구 간사님 호호호~~~”

방문할 때마다 한 노부부 어르신들께서 저를 맞이하시며 건네시는 반가운 인사말씀입니다. 들을 때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이 분들은 올 초쯤부터 저희 센터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어르신들인데, 저는 이렇게 연세드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멋진 말씀을 구사하실까 해서 여쭙봤더니 글썄,

저희가 벽에 붙여드린 센터 스티커의 문구였지 뭡니까? 하하하^^

저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께 전하는 소소한 모든 것들이 이 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그만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젊어서부터 할머니 몸이 약하여 집마다 자녀를 많이 두었던 그 옛날에도 겨우 아들 한 명만을 슬하에 두어 어르신들이나 아들이나 외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마저 20 여년 전부터 시각을 상실하고 어두운 삶을 살고 계시며, 더욱이 몇 해 전 아들의 사업부진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그나마 있던 왕래조차 뜸해져 노부부 어르신들은 작은 원룸에서 그저 서로만을 의지하고 사는 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센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찾아오는 이 하나 없던 무료한 삶에 매주 찾아가 일주일 동안의 생활 이야기를 들어 드리면서 몸 아프신 곳이 없나 세심히 여쭙고, 밑반찬 될 만한 것들은 지원해 드리며, 글에 어두운 분들께 우

편물들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눈과 손이 예전같지 않아 손톱 깎는 것마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노부부께 저희 센터는 그 분들의 인사말처럼 “어르신들의 평생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르신들 집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볼 때마다 흐뭇한 웃음이 지어지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저희 센터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시작한지 벌써 13년 짜네요

첫 시작의 마음을 언제나 잃지 않기를 소망하며 섬겨 오던 시간들이 저희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들인 만큼,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옛 친구처럼 우리 어르신들께 평생친구가 되어 드리는 센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센터를 만난 것이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오늘도 찾아가겠습니다.

최 현 간사





어르신 해수찜나들이

찬 바람이 뼈속까지 스민다는 11월 말쯤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묻곤 합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구”하십니다. 해수찜 나들이를 언제 가냐고? 하하^^ 이렇듯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거의 매 해 이 쯤 되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해수찜나들이에 나섭니다.

바닷물을 끓여 데워진 찜질수에 수건을 적셔 허리, 어깨 등 몸의 아픈 구석구석을 찜질 하는 어르신들! 여기저기서 “어~ 시원~~하다~~” 연발입니다.

똑같은 찜질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어르신들과 저희 직원들은 여럿인데 마치 쌍둥이들처럼 보입니다.

땀과 함께 여러 통증들도 함께 빼 내서인지 어르신들은 점심식사를 아주 맛있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잠시 쉬을 가진 후 모래찜방, 옥돌찜방을 드나시며 우리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나기를 소망하는 듯...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항상 **기쁨**과 **행복**을 전해 드려요~

◎ 방문요양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 가정을 매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일상과 필요를 살피고, 신체증진을 위해 건강을 체크하며 개인활동 및 가사와 말벗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하기 힘든 외출과 병원 진료시 차량을 지원하여 동행해 드리고 약타다 주기 등의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자녀의 역할과도 같은 친근한 서비스로써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 밑반찬 지원 서비스

어르신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생물 및 조리한 밑반찬을 월 2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여 충분한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부담을 덜어 드리는 세심한 관심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가꿔드리고 있습니다.



◎ 영양죽 지원 서비스

매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나 기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께 맛있고 영양 만점의 맛있는 죽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죽이 그 어떤 약보다 아픈 몸을 낫게 해 주신다며 고마워하신답니다! 우리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외로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를 소원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급외자(A,B등급)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변활동과 일상생활지원, 가사와 우애 등 어르신의 전반적인 삶에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한다'는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봉사자분들이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가 말벗과 집안일 돕기, 일상생활 도우미가 되어 친구처럼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많은 보탬은 되어 드리지 못하는데도 작은 봉사에도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 속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봉사자 분들의 환한 미소가 오래 동안 간직되 시기를 바랍니다.

◎ 장애우 도시락 배달지원

전주시 거주 장애우 50 여 명에게 매일 도시락과 밑반찬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고루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요리하여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배달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질병이나 건강 등을 배려 해 드리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고 고마워하십니다. 정기적으로 음식 조리과 배달에 수고해 주신 자원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생신 축하 & 영화관람



Happy Birthday To You!!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기고 축하받고 싶은 날 중 하나가 바로 생일이 아닐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치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뻐 하십니다. 또 영화관에 가서 재미 난 영화도 한 편 같이 봅니다. 신바람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비록 연세는 지긋 하시지만 마음 만큼은 젊은이와 같으신가 봅니다.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맘~이요..



중복 지원

한 해 중에 가장 덥다는 중복에 어르신들께 보양이 되는 닭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삼계탕집마다 줄을 선다는 중복날!

어르신들은 센터에서 이런 날까지 챙겨 주냐며, 폭 삶아서 잘 먹고 여름동안 더위를 잘 이기겠다고 감사해 하십니다. 어르신!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



추석명절 지원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 한가위가 우리 나라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큼니다.

무엇보다 흠어진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는 설레는 날입니다.

그러나 찾아올 가족이 없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왠지 서글픔도 함께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추석명절 지원은 단순히 복지서비스 차원을 넘어 가족이 되어 드리는 따뜻한 나눔입니다. 추수철이나 맛볼 수 있는 햅쌀과 명절을 지낼 수 있는 생선셋트를 챙겨 저희는 어르신 집집마다 찾아가했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듯 저희를 맞아 주시는 어르신들의 입가에 번지는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에 저희 역시 감염되어 종일 행복했습니다.



동절기 지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롯데백화점 지원)



김장김치지원



연탄지원

옛날부터 우리 민족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찜갈고미와 겨우내 두고 먹을 김치만 있으면 월동준비를 끝냈다고 든든해 하셨답니다.

저희 센터는 타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분들께 연탄과 김장김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렇듯 겨울마다 지원 해 드리는 찜갈고미와 김장김치는 우리 어르신들께 든든한 월동준비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정한 대화와 친구가 아닐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이런 저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오히려 제가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성심껏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 (사회복무요원)



저는 여명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방문요양서비스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와 말벗 서비스 등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담당 간사님이 하시며 저는 문안과 함께 안마나 간단한 집안 정리 및 심부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항상 저를 찾아주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궂은 데도 우리 총각이 같이 와주었다고 고마워하십니다. 혹시라도 다른 일로 어르신 댁 방문을 빠지기만 해도 걱정해주십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럼에도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담긴 한마디에서 어떤 무언가를 느낍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께 사랑은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과 소통이 되어 더욱 성심껏 도와드리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힘드시지만 정신적인, 외로움에 지쳐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정한 대화와 친구가 아닐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이런 저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오히려 제가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성심껏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느새 사회복무요원이 된지 1년하고도 반 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즐거워서인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 싶습니다. 저체중으로 남들보다 허약한 체력인 저로선 육체적으로 혹독한 군생활이 아닌 어르신들을 돕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보다 힘들게 훈련하고 있을 다른 현역군인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에 더욱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려합니다. 앞으로 많이 남지 않은 복무기간동안 더 많은 것을 어르신들과 센터 간사님들께 배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께 잘 부탁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변산 마실길!!

천혜의 절경 변산에 “길”이 생겼습니다.

변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길, 바로 “마실길”입니다.

2009년 10월에 개통된 마실길은 4구간 8코스로 이루어졌으며

약 2백 여리의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마을”을 뜻하는 사투리 “마실”이 갖는 어감은 바닷가의 소박하고 정겨운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그 이름만으로도 정겹습니다.

변산 해안선을 따라 기다랗게 나 있는 마실길!

제주도 올레길과 비슷한 테마 길라고 일단 해 둘까요?

그 멋진 길에 우리의 걸음도 남기고 싶어서 11월 12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길에 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부안 변산을 향했습니다.

가까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임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는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에 한가로이 배들이 쉬고 있는 선착장에서부터 마실길 여행에 올랐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도닥이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 험하지는 않았으나 11월 초겨울이 무색할 만큼 온 몸은 땀으로 적셔졌습니다.

두어 구간을 걷다 간식도 나눠먹고... 다리가 좀 아파올 때쯤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펼쳐보니 그 어떤 한정식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려 할 때쯤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 멋진 길여행이었고, 그 길에 서로가 함께 해서 더 멋진 날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인 "White Christmas!" 자원봉사자 해님이 축제

나눔과 온정이 있는 크리스마스 전야에 우리 봉사자들은 한 해를 보내고 다가 올 새해를 설렘으로 기다리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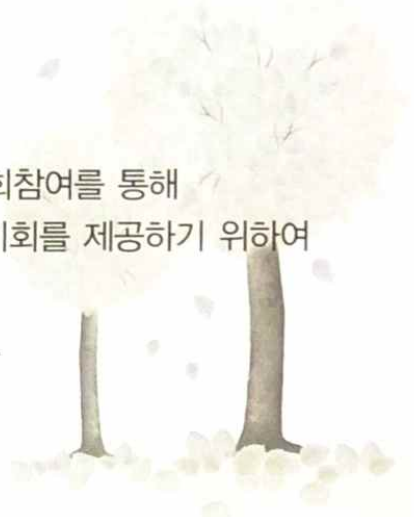
멋지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 앉아 얼굴을 맞대고 음식을 먹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던 따뜻한 시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통해 서로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메시지들이 그 밤을 참으로 훈훈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숨은 보석인 봉사자들은 올 해도 여러 다양한 현장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십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어느덧 우리 사회에도 기부와 봉사가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부유해지는 마음을 봅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자원봉사자 해님이축제가 아닐까요?!!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경제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여가 선용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위탁받아 200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고 계십니다.



◎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55세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생활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 작업 내용과 작업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소일거리이고 주로 네 일아트(인조손톱) 포장, 실밥정리, 상자접기, 조립 등의

일을 전북지역 20여개 업체에서 수주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작업하십니다.

◎ 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서방향으로 500m 떨어진 선화학교 옆 만지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로 함께해주세요.

- 차량봉사 : 어르신을 출퇴근 시켜줄 차량봉사자가 필요합니다.
- 작업보조 : 어르신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도와주고 불량검사를 해줄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 작업장 시설 보수 : 동절기 준비 및 장마철 대비 노후된 지붕 수리 등등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 홍보활동

경로당 방문과 생활정보지를 통해 어르신을 모집하고, 전화·인터넷·방문 조사를 통해 업체를 발굴합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친구가 되어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잃어버린 기쁨과 건강을 찾아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2011 회계보고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보조금	인건비	101,152,000	사무비	인건비	169,209,287
사업수입	바우처사업수입	13,511,575		운영비	12,884,310
	장기요양급여수입금	10,557,953	재산조성비	시설비	260,000
후원금	지정후원금	1,870,000	사업비	방문요양	15,704,290
	비지정후원금	12,633,527			
전입금	전입금	59,237,192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20,257	차기이월	차기이월	924,617
	합계	198,982,504		합계	198,982,504

2012 상반기 사업계획

정기적 사업

- 방문요양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밑반찬 및 영양죽지원, 생신축하, 영화관람 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도시락 지원
- 직원월례회 및 교육, 운영위원회 모임, 노노케어
- 요양보호사 및 봉사자 간담회/ 보수교육 / 단합대회
- 대상자 발굴 및 후원과 자원봉사 수시모집/홍보

월별 주요사업

1월

- 직원시무식
- 절기지원(설 명절)
- 동절기 지원

2월

- 상반기 소식지 발간
- 운영위원회

3월

- 자원봉사자 단합대회
- 어르신 소그룹 나들이

4월

- 절기지원(부활절 음식나눔)

5월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 절기지원(어버이날)

6월

- 전북 재가노인 초청 효도큰잔치
- 운영위원회

※ 상기 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직원 연수 (제주도 올레길)



오랜 기다림속에서 이루어진 2박 3일 연수.
 “내려놓음”이라는 주제하에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장흥에서 해돋이를 보고, 제주도에 도착한 배에서 내릴때
 부터 내렸던 비는 마지막날까지 내렸지만 비를 맞으며 우
 리는 첫날 올레길 1코스를 걷고, 둘째날은 외국인들도 극
 찬한 7코스 완주와 비가 온 덕분에 영포폭포의 장관을
 보고 마지막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속에 한라
 산을 오르며 우리 자신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과 앞으로
 의 삶에 대하여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멋진 올레길 순례가 짝~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전재협 종사자세미나 & 도지사상 수상
 Congratulation!!

〈2011 전북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세미나〉가 11월
 24~25일 대둔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향상과 안위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종사자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 더 나은 복지 실현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었습
 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저희 센터의 최현 간사가 전라북도
 지사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함께 축하해 주세요용~~



◎ 전주지역회 종사자단합대회



단풍이 무르익어 제법 농후한 빛을 내는 10월 꼬트머리
 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주지역회 종사자들이 순창 강천
 산에서 뭉쳤습니다.
 과히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명소답게, 곱
 게 물들인 이파리로 웃입은 나무숲 사이 뿜어 내는 자연
 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호흡했습니다.
 전주지역회 화이팅!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물질후원 |

강미현, 강원봉, 권오희, 권태균, 권현정, 김경숙, 김관선, 김기현, 김수진, 김요셉, 김인순, 김현석, 노영숙, 노인숙, 도성숙, 문영석, 박래승, 박은영, 백종일, 서옥주, 소점례, 소효례, 송현주, 신순미, 신은경, 신향순, 안세웅, 안영선, 양승자, 양은희, 오정순, 유 미, 유덕순, 유순임, 유영숙, 유정자, 이국진, 이금자, 이기룡, 이상례, 이석길, 이석연, 이세라, 이소영, 이수영, 이정우, 이정후, 이주희, 이현미, 이현심, 이희준, 임선아, 임은희, 장한나, 정숙희, 주미애, 진정택, 차상미, 차진석, 천홍지, 최 현, 최규홍, 최명순, 최미선, 최승호, 최재호, 최정애, 최종호, 한현숙, 홍옥숙, 황은희
이-마트전주점,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여명교회2청년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물품후원 |

낙원떡집, 다복술, 대주상사, 대흥정판사, 본죽중화산점, 봉유통, 송천건어물, 승현상사, 진보식품, 코코호두 금암점, 하나로 떡집, 하림완산대리점, 형제유통, 뚜레쥬르 서곡점, 작은봉사큰기쁨팀, 석유품질 관리원전북지사, 롯데백화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상산고동문화

| 자원봉사자 가족 |

권태권, 김진기, 김옥례, 노영숙, 도성숙, 박래승, 박지숙, 윤미례, 이수영, 임은희, 박준병, 장옥심, 정숙희, 조계석, 석유품질관리원전북지사,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 1-4 반, 전주상산고등학교봉사동아리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여명노인복지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 체 국 400010-01- 011708
농 협 658-01-002798

